공원 민간특례사업 최대 관심은 '보상가'

제주시 어제 애향운동장서 중부공원 관련 주민설명회

토지주 "20년간 재산권 행사 못해… 보상 제대로" 주장 오수 처리난 문제도 지적

7일 제주에서 첫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중부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가 제주종합경기장 내 애향운동장에서 열린 가운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가 참석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내년 8월 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민간특례방식으로 추진되는 제주시 중부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서는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특히 토지주들은 민간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서를 통해 토지 보상가를 공시지가의 5배로 산정한 데 대해 집중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또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오수를 최종적으로 지금도 포화상태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인입시켜 처리하는 데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제주시는 7일 오후 도내에서 처음 추진되는 건입동 소재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제주종합경기장 내 애향운동장에서 개최했다. 중부공원은 21만4200㎡ 중 사유지가 95.2%로, 토지주가 140여명에 이른다.

A씨는 "2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사유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공원을 해제해주지 않으니 토지보상은 제대로 받아야겠다는 것이 토지주들 생각"이라며 "사업제안서에 토지 보상가를 공시지가의 5배로 산정했는데, 2018~2019년 남조봉과 사라봉공원에 대한 감정평가 당시 공시지가의 7~8배라는 제주도의 설명과 도의회 속기록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B씨도 "이전 제주도 담당자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5배에 1.5배를 더하고, 민간특례사업의 경우 20%를 추가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D씨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입지가 타당한지,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종합평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오수를 지금도 포화상태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내는 걸 저감방안이라고 제시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주들은 희망시 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주고, 토지 감정평가시 우선협상대상자가 아닌 토지주와 행정이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주시 관계자는 "제안서에 사유지 보상가를 공시지가의 5배로 잡은 것은 추정가다. 실제 보상 땐 공원이 아닌 자연녹지로 평가하고, 감정평가사는 행정과 우선협상대상자, 그리고 토지주도 추천하게 된다"며 "평가서 초안 공람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분석해 본안 평가서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월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으로 제일건설을 선정했고,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5월 제안수용을 통보한 상태다. 도내 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제일건설은 공원에 3722억원을 투입해 79% 면적에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면적에는 비공원시설로 796세대(지하1층·지상 15층)의 아파트 건설을 골자로 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문미숙기자

다시 쓰이는 폐건전지·종이팩 '쑥'

올 상반기 재활용 수거량 서귀포서 전년 대비 27% ↑

폐건전지·종이팩 같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량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서귀포시는 2020년도 상반기 지역 내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량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상반기 중 수거된 재활용 가능자원은 ▷폐형광등 2만5500㎏ ▷폐건전지 6020㎏ ▷종이팩 3만1338㎏ 등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폐형광등 24.5% ▷폐건전지 85.9% ▷종이팩은 22.4% 증가했다. 특히 폐건전지의 경우 2018년 6t이 치리됐고, 2019년 12t에 이어 2020년 상반기에 6t이 처리될 만큼 증가세가 확연하다.

서귀포시는 재활용 가능자원 가운데 수거·선별이 부진한 폐건전지·종이팩 등을 수거하기 위해 읍·면·동 등에 전담 수거체계를 구축했다. 시 전역의 가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클린하우스·재활용도움센터 등을 통해 배출하면 생활환경과 자원순환 전담팀에서 주 2차례 순회하며 수거, 처리시설로 보내는 방식이다. 폐형광등·폐건전지는 현재 도외업체로, 종이팩(컵)은 도내 업체로 보내져 처리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 폐건전지·종이팩을 새 건전지·화장지 등으로 교환해주는 환경나눔장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재활용품 분리 배출 인식 개선·재활용 활성화 홍보·적기 수거 등을 통해 자원회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나의웅 생활환경과장은 "폐건전지·폐형광등·종이팩 등 수거는 수질·토양오염 예방과 함께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각 가정 등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에 동참해 주신다면 청정 서귀포를 지키는 동시에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노인일자리 급여, 상품권으로 받자"

기존 보수보다 20% 더 지급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활동비 중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활동비의 30%(8만1000원)를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면, 매월 기존 보수의 20%(5만9000원) 상당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한다. 예를 들어 2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참가자의 경우 현금 18만9000원과 상품권 14만원을 합쳐 총 32만9000원을 받게 된다.

온누리 상품권 지급 대상자는 현재 서귀포시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3692명 중 상품권 지급에 동의한 2730명이며, 8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 및 3개 수행기관(서귀포 시니어클럽·서귀포시 노인복지관·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상품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4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상품권 지급으로 어르신들의 생계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당산봉에 산불감시초소

제주시는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정상에 다목적 산불감시초소를 오는 10월쯤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비 1억원이 투입될 산불감시초소는 FRP 재질의 기존 초소를 철거하고, 국산 목재로 선보일 계획이다.

당산봉은 정상에서 한라산과 산방산, 마라도, 차귀도를 조망할 수 있고, 올레 12코스가 지나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이에 초소 1층은 산불감시 공간으로, 2층은 전망대형으로 조성해 산불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탐방객에게 편의도 제공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도 FRP 재질의 산불초소를 단계적으로 목재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12월부터 따로 버려야 하는 페트병 제주시, 전용수거함 설치해 거둔다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에 설치된 투명 폐페트병 전용 수거함.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가 생수병 등 투명 폐페트병의 재활용을 위한 별도 배출 의무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공동주택에 전용수거함을 확대 설치했다.

제주시는 이달 1일부터 대규모 공동주택 50곳에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 320개를 설치, 매주 화·금요일 두 차례 수거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용수거함 확대는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시행시기(공동주택 2020년 12월 1일, 단독주택 2021년 12월 1일)에 앞서 별도 배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3월부터 재활용도움센터 37곳과 공동주택 5곳에서 투명 폐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22.8t을 수거했다. 도내 폐페트병의 대부분은 생수병이 차지한다.

지난해 제주에서 판매된 0.33~2ℓ 크기의 삼다수는 8308만여병으로, 무게로 환산하면 2475t에 이른다. 시는 공동주택에서의 별도 배출을 확대해 연말까지 도내 삼다수병 발생량의 약 10%(247t) 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별도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별도 수거·선별 절차를 거쳐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 원료로 활용되는데, 삼다수병(2ℓ) 16개로 에코백 1개를 만들 수 있는 등 자연친화적인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문미숙기자

청소년 멘토 대학생 모집

서귀포시는 오는 13일까지 '2020 학기 중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학생 멘토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시 청소년-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지역 내 재학중인 중학생과 우수 대학생을 연계, 학력증진·진로상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0 학기 중 멘토링 프로그램은 7월 25~9월 26일 사이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남주중·서귀중앙여중·서귀포중·안덕중·표선중·효돈중 등 지역 내 6개 학교가 참여하며,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과목이 운영된다.

멘토로 참여하려면 사범대학(교육대학) 재학 및 교직 이수 중인 재학생으로 학습지도 전공자·멘토 활동 경험자이거나 어학자격(영어)을 소지해야 한다. 신청은 방문 또는 메일로 하면 된다. 문의 760-3843. 현영종기자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감귤·만감류 영농안내

▣ 당을 올리려면
○2차 낙과후 해피한그린 25말+글루칼(포도당 칼슘)50말→일주일 간격 2회엽면시비(농약 혼용가능)
○색이 변할때(노지감귤인 경우 10월초)해피한 그린 25말+글루칼 25말 일주일 간격 2~3회 엽면시비

▣ 양낭막(감귤속 내피)을 부드럽게 하려면
○1차, 2차 낙과후 하이휴믹(천연가리)2번 관주 (3300㎡ 당 2번 관주시 4만원 소요)

▣ 부피과 방지 하려면(만감류인 경우)
○ 9월부터 송풍기 가동해 아침 이슬이 맺지 않도록 할것
○ 7월부터 한라봉인 경우 15일에 한번 글루칼 50~100말 엽면시비 다른 만감류는 30일에 한번 엽면시비

▣ 산이 높고 당이 떨어졌을때(하우스 감귤포함 수확 20일전)
○ 50말에 해피한 그린 3병+글루칼 2포 3~4일간격 3회 엽면시비

(주)포트라 제주지사
곰탱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